

2026년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17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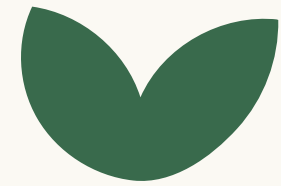
팀명: 씨앗에서 마을까지

마을이음 생태전환

8호17기: 마을이음 초록장터
2026.09.16. ~ 2026.09.30



8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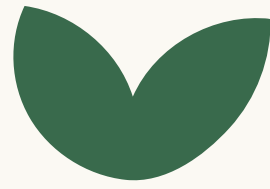


〈8회기 정기모임 및 일정협의〉

1. 지난 활동 돌아보기
(초록발자국 놀이터 및 보완 사항 협의)
2. 마을이음 초록장터 운영 방안 협의



8호기



<지난 활동 돌아보기>

교사 1: 버려지는 상자나 통을 폐기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를 만들어가는 재료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재료를 직접 만지고 탐색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쓰임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정해진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사 3: 교실에서 시작된 ‘다시 쓰기’의 경험이 마을 환경정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마을을 걸으며 쓰레기를 발견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해요’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생태교육은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마을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교사 2: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보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움직이며 경험하는 과정이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살펴보는 작은 행동 속에서도 아이들이 마을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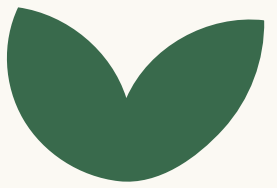
교사 4: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에서 발견한 작은 관심이 교사들의 고민으로 이어지고, 다시 마을과 가정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처럼 우리도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기관의 원장님과 함께하는 약속

- 버려지는 물건도 새로운 놀이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재활용·자원순환 재료를 안전하게 탐색하고 놀이로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8호기

< 마을이음 초록장터 운영 방안 협의 >



교사 1: 장난감을 새로 구매하기보다 마을에 있는 센터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활용하여 필요한 장난감을 빌려 쓰는 경험을 제공하고, 함께 사용하고 다시 돌려주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교사 3: 우리가 그동안 폐품과 재활용품으로 놀이하며 만든 작품을 어린이집 앞에 전시하여 아이들의 놀이 과정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버려진 물건도 다시 쓰임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교사 2: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중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모아 착한가게에 기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증 전 물품의 상태와 안전성을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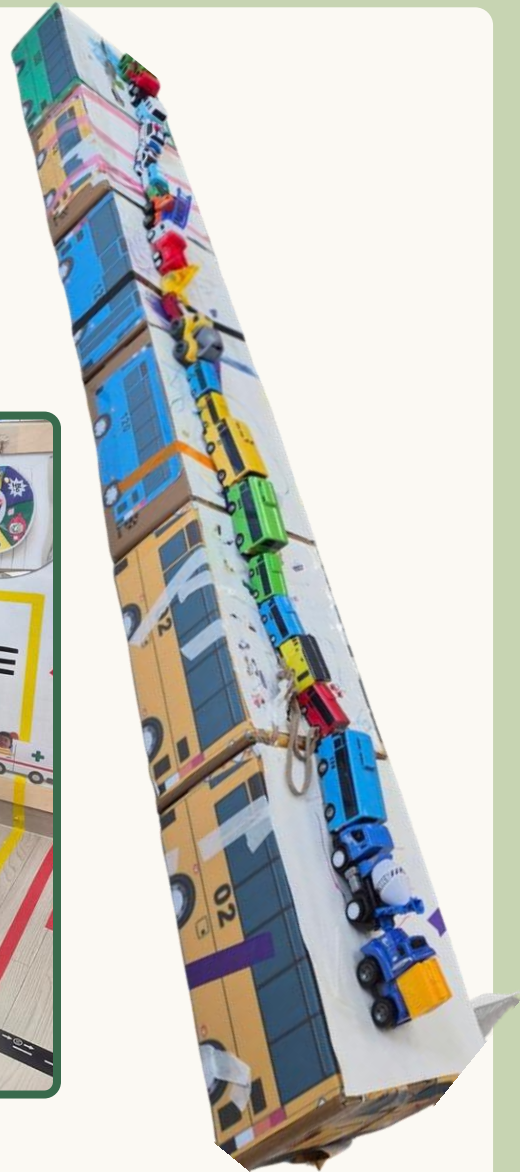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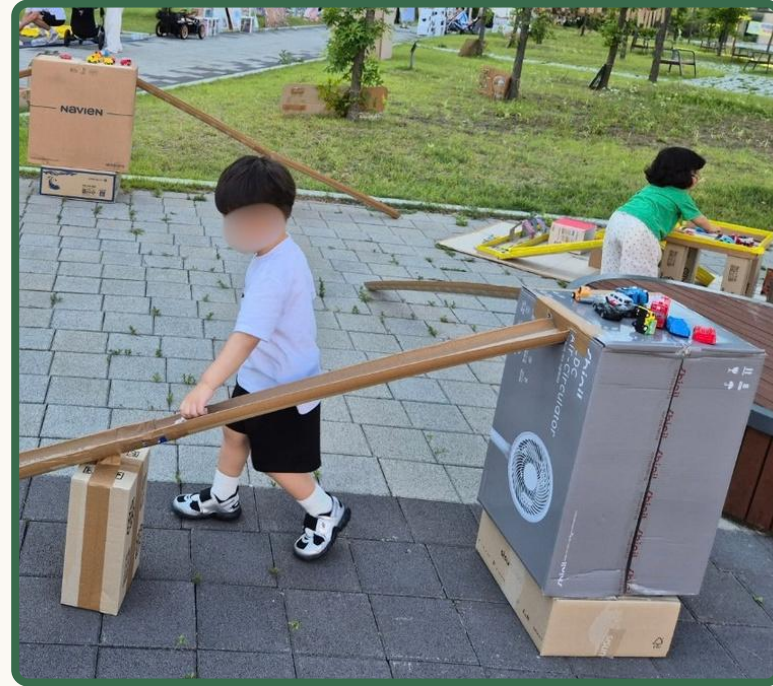
교사 4: 초록장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증하고, 빌려 쓰고, 다시 사용하는 경험'이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가정과도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협의 내용>

-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착한가게에 기증하고, 마을 센터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시 쓰고, 나누어 쓰는' 경험을 실천한다.
- 두 기관의 놀이 사례와 영유아의 생각을 공유하며 가정·마을과 연결되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실천으로 확장한다.

-8호기 활동내용-

“재활용 놀이의 또 다른 시작” 우리가 만든 작품을 마을과 함께 나누요!



마을에서 만난 폐품과 재활용품은 아이들의 손을 거쳐 새로운 놀잇감과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아이들은 상자, 종이관, 플라스틱 용기 등 다양한 재료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그림을 그리고, 붙이고, 꾸미며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했어요. 놀이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은 어린이집 앞에 전시하여 아이들의 놀이 과정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버려진 물건도 다시 새로운 쓰임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하고자 했어요.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함께 바라보며 다시 쓰고,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경험해보았어요.

-8회기 활동내용-

“마을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쓰지 않는 물건은 나누고, 필요한 장난감은 빌려 써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중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함께 모아 착한가게에 기증해요. 기증하기 전 물품의 상태와 안전성을 살펴보고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게 쓰일 수 있음을 경험해요. 그리고 장난감을 새로 구매하기보다 마을의 장난감 대여센터를 이용하여 필요한 장난감을 빌려 쓰고, 다시 돌려주는 경험을 통해 물건을 오래 사용하고 함께 나누어 쓰는 방법을 알아가고자 해요.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나누고, 필요한 것은 빌려 쓰며 함께 쓰는 즐거움을 마을에서 배우가요.”

8호기를 마무리하며...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착한가게에 기증하고, 필요한 장난감은 새로 구매하기보다 마을의 장난감 대여센터에서 빌려 쓰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고 실천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재활용품으로 만든 작품을 어린이집 앞에 전시하여 아이들의 놀이를 마을 주민들과 나누고, 버려진 물건도 새로운 쓰임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함께 전하고자 했습니다. 교사들은 환경교육이 특별한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기, 나누어 쓰기, 빌려 쓰기'와 같은 작은 실천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함께 배웠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놀이에서 시작된 생각이 교실을 넘어 가정과 마을의 실천으로 이어졌고, 우리도 함께 쓰고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의 구성원임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